

“인맥의 왕 비법은 ‘미인대칭 비비불’”

〈미소·인사·대화·칭찬하기, 비난·비평·불만 안하기〉

비즈 & 피플

‘인맥의 왕’ 박희영 회장

총재·회장·이사장 등 직책만 20여개
하루 문자 300여 통…1만명과 연락

공직생활 하다가 13년 전 명예퇴직
최고경영자 과정 16번 총무 도맡아

서울 광화문의 사무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집주인이 두 배는 더 크게 ‘활짝’ 웃으며 맞았다. 초면에 고민이 됐다. 이 분을 뭐라고 불러야 하나. 명함을 받고는 더욱 난감해졌다. 총재, 회장, 교수, 원장, 대사, 이사장. 세상의 좋은 호칭이란 호칭은 다 가진 사람이다.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솔직히 털어놓았다.

“사석에서는 형님, 동생이 제일 좋습니다만 오늘은 회장으로 할까요? 도전한국인운동협회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칭은 물론 스스로도 ‘인맥의 왕’이라 자칭하는 박희영(66) 회장의 명함에는 ‘외교통상부 산하법인 G20 청소년미래포럼 총재/교육학박사/서울시 홍보대사’라고 적혀 있다. 놀라기는 이르다. 진짜는 뒷면에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총동문화 회장’, ‘대한민국 신지식인연합회 회장’, ‘서울대학교 지식정보최고위 운영이사장’, ‘한국생산성본부 총동문화 회장’, ‘한국경제인포럼협회 회장’, ‘카네기 총동문화 회장’이 빼곡히 적혀 있다. 맨 마지막에는 ‘오늘의 호칭’인 ‘사단법인 도전한국인운동협회 회장’이 올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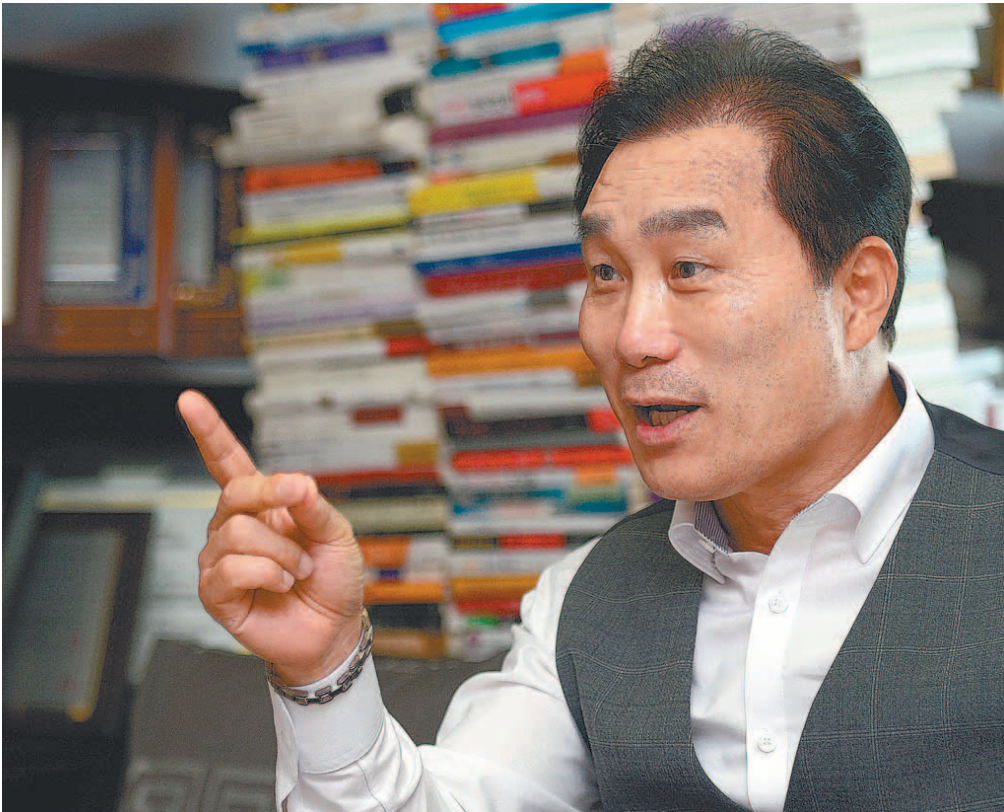
인맥의 왕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을까. 박회장의 스마트폰에는 1만명 정도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다. 평소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리’를 하는 명단만 1만명이다. 하루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는 200~300여 통, 카카오톡은 1000~2000통이 오간다. 박회장은 “카카오톡의 경우 이용이 워낙 많다보니 정지도 당해봤다”고 했다.

인맥의 왕은 책도 많이 썼다.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은 인맥관리의 실천편이라 할 수 있는 ‘성공하고 싶으면 이 사람을 만나라(한림북스)’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인맥의 왕은 원래부터 인맥의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박회장은 관세청, 세관에서 평범한 공직생활을 하다가 13년 전 명예퇴직을 했다.

“퇴직을 하고보니 친구들은 다들 자기 분야에



각종 서적과 자료, 포스터, 상패로 꽉 차 발 디딜 틈이 없는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박희영 회장이 인맥관리의 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서 최고가 됐는데 난 너무 미미해 보이는 거라. 안되겠구나 싶어 그때부터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배우기 시작했다.”

고려대, 단국대, 순천향대, 한국생산성본부, 카네기 등 최고경영자 과정을 무려 16개나 마쳤다. 임학을 하면 다들 귀찮아하는 사무총장(총무)을 도맡았다. 좋은 사람을 사귀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돈이 돈을 낳듯, 사람도 사람을 낳았다. 불과 몇 년 되지 않아 박회장은 자신의 이름이 박힌 명함만 20여 장을 가진 ‘왕’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 ‘왕의 도전’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

그럼 이쯤에서 박회장이 밝히는 인맥의 왕이 되는 비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미인대칭 비비불’ 일곱 글자만 알면 된다. ‘미인대칭’은 인맥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다. ‘미소짓기(거울을 보며 연습하라)’, ‘먼저 인사하기(인사는 위 사람이 아니라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대화하기(먼저 말을 걸어라)’, ‘칭찬하기(칭찬은 여러 사람 앞에서, 구체적으로, 큰 소리로 하라)’이다.

‘비비불’은 반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이다. 비난, 비평, 불만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남 홍보는 거 아닌가. 하지만 남을 홍보하면 일주일 만에 당사자 귀에 들어간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

박회장은 7월8일 큰 일 하나를 벌인다. 서울 어린이대공원 능동숲속의무대에서 펼쳐지는 제5회 대한민국 최고기록인증 2017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주최 도전한국인운동협회)이다. 세계 기네스에 도전하는 각종 이벤트가 펼쳐지는 행사다. 올해 페스티벌에는 8000여 명이 참여해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회장은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우리의 도전”이라고 했다.

인맥의 왕은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분주했다. 1시간 남짓 되는 인터뷰 시간 동안 문자 메시지, 전화는 물론 방문자도 끊이지 않았다. 그의 전화 벨소리인 오페라 아리아가 귀에 못이 배길 즈음 인터뷰가 끝났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기자에게 박회장이 “실은 오늘 작업이 하나 더 늘었다”면서 딱척 웃었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국가 유공자를 위해 7월에 창간되는 월간지의 발행인이 ‘박희영’으로 나와 있었다. 허이구, 참.

양형보 기자 ranbi@donga.com

? 박희영 회장 프로필

▲1951년 전남 순천 태생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수상: 창업진흥원장 표창(2011), 한국신지식인연합회 올해의 신지식인(20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표창(2013) 등 ▲저서: 성공을 부르는 인맥의 왕, 리더의 모자람 1%, 성공하고 싶다면 이 사람을 만나라 등

공정위, ‘계열사 허위 자료’ 이중근 회장 고발

〈부영그룹〉

홍덕기업 등 누락, 차명 소유주 기재 등
대기업 지정자료 10년 넘게 허위 제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사진)이 계열사 현황 자료를 10년 넘게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다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 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뒤 처음 발표된 대기업집단 제재여서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홍덕기업 등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이 회장은 또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 6개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을 설립할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후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회사 설립·인수 시에도 본

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공정위는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7개 계열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누락해 신고하고, 그 중엔 미폐입 기간이 최장 14년이나 지속된 회사도 있다고 밝혔다. 또 명의신탁 기간 및 규모도 상당한데다가 2010년에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고 고발조치를 취한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dionys@donga.com

“SK텔레콤 전제” KT·LGU+ 또 손잡다

음원·스팸차단 이어 번호안내 협력

통신업계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또 다시 손을 잡았다. 양사는 주소록 검색창을 통한 ‘번호안내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양사의 협력은 올해 들어 음원과 스팸차단에 이어 3번째. 공동 서비스 발굴 등을 통해 1위 업체 SK텔레콤을 견제하는 모양새다.

이번 서비스는 410만개 이상의 상호검색은 물론, 자주 전화하는 상호를 업종별로 분류해 전화번호를 안내해 준다. 주소록의 검색창을 통해 찾고 싶은 상호 또는 업종을 입력하면 거리 또는 방문순으로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상호의 상세 화면에선 전화번호와 주소 및

위치 등 상세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 길안내와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대중교통 및 도보안내도 제공한다. 또 주소록 내 별도의 ‘홈페이지’ 아이콘을 통해 병원과 약국, 은행 등 일상생활에 주로 이용하는 업종을 선별해 위치 기반으로 전화번호를 안내해준다. KT는 통화가 많은 순으로 제공하며, LG유플러스는 병원과 약국의 요일별 운영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6월 초 출시된 LG전자 ‘X500’부터 적용됐으며, 향후 대상 단말을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양사는 앞으로도 협력을 더 강화해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김병근 기자

LG전자, ‘G6’ 용량·색상 다변화

LG전자가 ‘G6’의 내장메모리 용량과 색상 등을 다변화한다. LG전자는 7월 초 ‘G6플러스’ (사진)와 32GB G6 2종을 국내 출시한다. G6플러스는 128GB 내장메모리를 갖췄다. 무선 충전 기능도 적용하고 B&O플레이 번들 이어폰도 제공한다. 색상은 옵티컬 아스트로 블랙, 옵티컬 테라 골드, 옵티컬 마린 블루 3가지다. 32GB 내장메모리를 탑재한 G6는 G6 기본 색상인 미스트 화이트 외에도 테라 골드, 마린 블루 등을 추가해 총3가지 색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LG전자는 신 모델 출시에 맞춰 G6 시리즈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다.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안면인식’ 기능이 동작인식을 추가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대기전력을 낮춰주는 저전력알고리즘도 적용된다.

김병근 기자

뉴스디자인 | 신하늬 기자

그것 참 신통하다!

불이고 확인하세요

12步 불편한 곳에 붙이세요!

시원함에 한번 놀라고 만족감에 또한번 놀란다!
신통방통-강력한 원적외선 침 부착 패치

결음보

아하!
이게 바로 소문으로만 들던
바로 그 제품이구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과학적 원리입니다!
간편하고 쉽습니다!

운동전후 남녀노소 구분없이 사용가능

(주)솔원한방제약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구입문의 1670-5465

변을 쑥~ 나오게 하는~

그것 참 시원하구나~!!

365 센스맥

▶ 아침마다 상쾌하게 365센스맥-배변의 비밀을 풀었다!
올바른 식습관과 풍부한 식이섬유 섭취도 중요하지만 365 센스맥으로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장 스스로 유익한 미생물 증식 및 운동 능력을 키워 튼튼하고 건강한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 굶고 시원하게 ~ 배변으로 몸속 헬원까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비교적 건강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명활동을 위해 먹은 3~10kg 내외의 음식물이 항상 장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365 센스맥은 이런 음식물이 장내에서 장시간 머물러 있는 현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65센스맥은 알로에 아보레센스가 함유되어 대장을 자극하고 대장 내의 수분량을 높여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며 부원료인 삼백초, 하수오, 굴피, 반향초, 우재 등의 식물원료로 장기간 섭취하셔도 안전합니다.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장의 운동을 도와 리듬을 되살려줍니다.

자신있게 보내드립니다! 간편하게 하루 두번 아침이면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변을 쑥~ 나오게 하는 365센스맥 전문상담사
상담문의 : 1600-2865

저렴한 가격에 기분 좋아지고~
제품 성능에 또 한번 기분 좋다!

가격과파괴
가격거품 제거!
누구든지 저렴하게 드실 수 있도록 가격을 논하지 않고 가격에 보내드립니다!

장속까지 시원하게!

365센스맥
제품구성: 350mg x 800정 (280g)
1일 2회/1회 5정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평소 장 기능이 약하신 분
- ▶ 항상 배가 더부룩하신 분
- ▶ 배속에 가스로 불편하신 분
- ▶ 화장실에 자주 가거나 오래 앉아 계신 분
- ▶ 시원하게 배변을 못 보시는 분
- ▶ 배변이 힘든 나이 드신 분
- ▶ 불규칙한 배변시간을 가지신 분